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 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### 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6월 미 소비자 심리 지수 상승...인플레 둔화 예상 덕분
- NYT: 연준 선호 물가 지수 5월에 약간 상승
- Bloomberg: 연준 관리 대부분은 7월 금리 원치 않아

### [미국 금융]

- Bloomberg: BofA, "연준 정책 전환과 감세로 증시 버블 우려"

### [미 관세 영향]

- YahooFinance: 트럼프, "미중 관세 합의 어제 서명했다"
- WSJ: 연방 재무장관, "관세 합의 늦어질 것이다...9월 1일까지"

### [글로벌 경제]

- WSJ: 5월 중국의 산업 부문 수익 감소

### [인공지능]

- Bloomberg: PwC, "AI로 일처리 빨라져 서비스 가격 낮췄다"
- TechCrunch: 메타, AI 추론 모델 개발 위해 OpenAI 핵심 연구자 채용

### 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WSJ: 배달 로봇들이 마주한 거리의 현실: 눈 속에 갇히고, 속아 넘어지고...
- WSJ: 나이키, 1분기 매출 감소세 둔화...경영 정상화 전략으로
- WSJ: 맥도널드와 도넛 회사 Krispy Kreme 결별

### 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 정보

### [미국 경제]

#### Bloomberg: US consumer sentiment climbs as inflation expectations improve

#### 미 소비자 심리 지수 상승...인플레 둔화 예상 덕분

- 경제 전망과 개인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6월 미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가 크게 상승했다.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인플레에 대한 예상이 개선되었다.
- 미시간 대학의 오늘 금요일 발표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 최종치는 전월의 52.2에서 60.7로 상승했다. 8.5 포인트나 상승한 것은 지난 2024년 초 이래 가장 큰 폭이다.
- 소비자들이 이제는 관세와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큰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관계 전문가들은 진단했다.

Bloomberg 기사

## NYT: The Fed's Preferred Inflation Gauge Was Slightly Hotter in May 연준 선호 물가 지수 5월에 약간 상승

-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수에 따르면 미 소비 지출이 문화하는 가운데 5월부터 근원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경제학자들과 정책 결정자들도 올여름에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.
- 오늘 금요일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물가지수가 5월에 0.2% 상승해 전월보다 약간 더 빠르게 상승했다. 개인 소비지출 물가는 작년과 비교해서는 2.7% 상승했다.

NYT 기사

## Bloomberg: Majority of Fed Officials Leaning Against July Interest-Rate Cut 연준 관리 대부분은 7월 금리 원치 않아

-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관리들은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이 계속될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.
- Mary Daly과 Susan Collins를 비롯한 연준 관리들은 가을에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 있지만 오는 7월 29일과 30일 정례 회의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.
- 그리고 Tom Barkin과 Austan Goolsbee도 너무 빠른 금리 조정에 신중해야겠다는 입장인데 경제 전망이 확실한 상황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## [미국 금융]

### Bloomberg: BofA's Hartnett Sees Risk of Stock Bubble on Fed Pivot, Tax Cuts BofA, “연준 정책 전환과 감세로 증시 버블 우려”

- BofA 에 따르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주식으로 대규모 투자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주식 시장 버블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.
- 관세로부터 감세와 금리 인하로 추세가 바뀌면서 올해 하반기에 증시의 높은 버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달러 약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.
- 올해 이미 주식 시장에 1천6백40억 불이 투입됐는데, 이는 역사상 연간 투입액으로 3번째 규모다.

Bloomberg 기사

## [미 관세 영향]

**YahooFinance: Trump says US, China framework 'signed' as Bessent targets Labor Day for key deals**  
**트럼프, “미중 관세 합의 어제 서명했다”**

-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 제네바에서의 비공식적인 합의를 공식적인 합의로 구체화하면서 관세 및 무역 합의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.
-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“우리는 어제 중국과 관세 서명을 했다”고 말했다.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.
- 중국 측은 “양측은 협상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 추가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확인했다”고 말했다.
- 중국은 무역 합의를 기반으로 희토류의 미국 수출을 확인했다.
- 연방 상무장관인 Howard Lutnick는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며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.

YahooFinance 기사

**WSJ: Bessent Signals Trade Deals Will Be Delayed**  
**연방 재무장관, “관세 합의 늦어질 것이다...9월 1일까지”**

- 연방재무장관인 Scott Bessent는 9월 초까지 10여 개 이상의 국가들과 관세 협상을 매듭짓기 희망한다고 말했다. 이에 따라 미국은 당초 협상 마감일인 7월 9일로 못 박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.
- 그는 현재 18개 국가에 협상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노동절인 9월 1일까지 마무리될 수 있다며 “7월 9일 마감이 주요 사안이 아니다”라고 말했다.

WSJ 기사

**[글로벌 경제]**

**WSJ: China's Industrial Profit Declined in May**  
**5월 중국의 산업 부문 수익 감소**

- 중국의 5월 산업 부문 수익은 1년 전과 비교하여 9.1% 감소했다. 4월의 연 3.0% 상승과 정반대 현상.
- 이 같은 수익 감소는 수요 약화, 가격 하락, 미 관세 여파에 따른 것이다.
- 항공 우주, 항공, 해양 산업의 수익은 연간 56% 상승했는데, 달 탐사와 항공기 수요에 힘입었다.

WSJ 기사

**[인공지능]**

**Bloomberg: PwC's AI Chief Says Firm Has Cut Prices as Tech Saves Staff Time**  
**PwC, “AI로 일처리 빨라져 서비스 가격 낮췄다”**

- 세계 최대 규모 컨설팅 회사 중 하나인 PwC는 AI를 사용해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이면서 일부 서비스의 가격을 인하했다.
- PwC AI 책임자 Dan Priest는 “AI 기술 활용이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인하가 무기한 지속되진 않겠지만, 우리는 고객을 위한 가치 창출에 집중하려 한다”고 전했다.
- 또한, 그는 AI 기술이 시스템 통합 분야에서 30%의 효율성 향상을 가져왔다고 전하며, 신뢰할 수 있는 업무 처리로 고객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.
- 한편, 아직 PwC의 구체적인 서비스 가격 책정에 관해서는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.

Bloomberg 기사

### **TechCrunch: Meta hires key OpenAI researcher to work on AI reasoning models**

#### **메타, AI 추론 모델 개발 위해 OpenAI 핵심 연구자 채용**

- 메타가 SuperIntelligence 팀의 AI 추론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자 OpenAI의 핵심 연구자였던 Trapit Bansal을 영입했다.
- Bansal은 OpenAI의 첫 번째 AI 추론 모델 o1의 창립 멤버이며, AI 강화 학습을 개발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.
- 최근 몇 달간 마크 주커버그는 이 팀을 구축하기 위해 인재 영입을 적극 주도해 왔는데, 구글 Deepmind 연구원과 스타트업 회사 Sesame의 머신러닝 부문 책임자들을 잇달아 합류시키는 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.
- 이번 주요 AI 연구진의 합류로 메타는 AI 경쟁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지만, OpenAI가 몇 주 내로 개방형 AI 추론 모델 출시를 계획 중이라는 점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.

TechCrunch 기사

### **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**

#### **WSJ: Flipped, Tricked and Stuck in Snow: The Streets Are Mean for Food Robots**

#### **배달 로봇들이 마주한 거리의 현실: 눈 속에 갇히고, 속아 넘어지고...**

- 로봇이 공장과 제조업 일자리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이후,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외식업계에도 로봇 도입이 확산하고 있다.
- 코코, 베어, 서브와 같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운영하는 수천 대의 배달 로봇이 이제 소비자의 집과 호텔 객실까지 음식을 배달하고, 음식 배달 앱 주문에도 대응하고 있다.
- 교통량이 적고 공간이 제한된 대학 캠퍼스에서 이 로봇들이 먼저 시범 운영되었는데, 현재는 30개 이상의 캠퍼스에서 GrubHub 앱을 이용하는 학생 고객들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. 도미노 피자 또한 휴스턴에서 배달 로봇을 시험 운행하기 시작했는데, 이 기계들은 주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으로 입증되었고,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주차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.
- 그러나 로봇이 도심에서 눈길에 갇히거나 넘어지기도 하고, 사람들의 장난에 속아 길을 잃거나 목적지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.

-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로봇을 신기하고 재미있는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지만, 일각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로봇이 많은 산업에서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.

WSJ 기사

## **WSJ: Nike Sees Sales Decline Decelerating in First-Quarter as Turnaround Strategy Plays Out**

**나이키, 1분기 매출 감소세 둔화...경영 정상화 전략으로**

- 나이키가 오래된 재고를 정리하고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회사 회생을 위한 경영 정상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. 이에 따라 이번 1분기 매출 감소세가 완화될 것이라 밝혔다.
- 나이키의 새로운 전략은 세분화된 시장 속에서도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특정 제품들에 집중해 사업을 재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.
- 나이키 CEO Elliott Hill은 이러한 전략은 도매 파트너사들과의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되고, 연말 주문량 증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.
- 한편, 나이키는 2억 1,100만 달러(주당 14센트)의 이익을 기록했는데, 전년 동기에는 15억 달러(주당 99센트)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인다. 또한, 매출과 이익 모두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여 향후 분기에는 확실한 매출 회복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.

WSJ 기사

## **WSJ: Krispy Kreme and McDonald's End Partnership**

**맥도널드와 도넛 회사 Krispy Kreme 결별**

- 도넛 생산 회사인 Krispy Kreme는 맥도널드와 제휴를 청산했다. 회사의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.
- 이 회사는 미국에서 자사 제품을 브랜드화하기 위해 맥도널드 2천4백 개 매장에 도넛을 판매해왔다.
- Krispy Kreme는 자체적으로 매출이 높은 매장과 해외 가맹점에 초점을 맞추어 계속적인 성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.

WSJ 기사

## [보고서]

### **트럼프 "중국과 합의 서명"...관세휴전 이어 '회토류 갈등' 봉합**

**"인도와 매우 큰 합의 할 것"...영국 이어 인도와 무역합의 임박 시사**

**미상무 "우선 10개국과 무역합의 추진"...백악관은 협상시한 연장 가능성 시사**

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 '휴전' 이후 불거진 이견을 봉합하는 합의에 서명한 것으로 26일(현지시간) 파악됐다.

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감세 등 자신의 국정 주요 의제를 반영한 이른바 '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' 입법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한 행사에서 "우리는 어제 막 중국과 서명했다"고 밝혔다.

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밝힌 미중간 합의는 미중간의 초고율 관세 전쟁을 봉합한 5월 1차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(제네바) 이후 불거진 '희토류-반도체' 등 관련 공급망 갈등을 봉합한 이달 9~10일 2차 미중 고위급 회담(런던)의 합의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